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도덕 · 윤리

수험 번호 : (　　)　　**성　명 : (　　)**

제1차 시험	2교시 전공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6])에 대한 도덕 교사 갑과 을의 대화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갑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과목에는 '윤리문제 탐구'가 있네요. '윤리문제 탐구'에서는 특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윤리문제 탐구'의 교육과정 '성격 및 목표' 부분을 보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윤리문제를 찾아 탐구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학습 과정에 중점을 둔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갑

그렇다면 '윤리문제 탐구'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부분에는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나요?

네. 해당 부분을 보면, "다양한 문제 사례를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여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기 주도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활동은 학습자들이 개인 또는 소집단을 구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계획하고 조사와 자료 수집 등을 거쳐 결과물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이므로,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2. 갑, 을은 동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이다.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와 밑줄 친 ㉡을 위해 을이 제시한 공부법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갑	사람들이 배우면 인위(人爲)가 날로 늘어나지만, 도(道)를 행하면 날로 줄어들게 된다. 줄고 또 줄어들면 결국 (㉠)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배우지 않는 것을 배움으로 삼아 사람들의 지나침을 본연의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만물의 자연(自然)을 돕고 감히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
을	내면의 덕(德)이 훌륭해지면, 그 외면의 형체[形]와 같은 것은 잊게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형체와 같이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덕과 같이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잊어버리니, 이를 성망(誠忘)이라 말한다. 그러나 성인(聖人)은 ㉡ 성망을 하지 않고, 잊어야 할 것을 잊음으로써 마음을 텅 비우고 재계했으니[心齋], 세상의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노닌다.

3. 다음은 응용윤리학의 어떤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은/는 상향식 접근법에 속하는 방법론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례 비교와 유비 추리를 사용하는 사례 중심 접근법을 말한다. 이 방법론의 옹호자들은 구체적인 사례, 상황 등으로부터 분리된 일반적인 원칙, 이론 등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들은 사례의 특수성을 경시하고 원칙들을 융통성 없이 해석하면서 그 원칙들을 도덕적 문제에 적용할 때 (㉡)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에 따르면, (㉡) 하에서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상충하는 원칙들의 교착 상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도덕적 논쟁이 과도해지고 끝없이 지속된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사례들을 전형적 사례와 비교하는 유비 추리에 의존하여 도덕적 문제에 대한 적합한 도덕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 선행하는 전형적 사례와 유비 추리는 이 방법론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하향식 접근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 대비되는 '전형적 사례의 독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4. 다음은 도덕 수업에서 '1990년대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를 주제로 학생 갑, 을, 병이 발표한 내용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학생 갑

남한 통일방안의 통일원칙에는 자주, 평화, 민주라는 3가지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북한 통일방안의 통일원칙에는 자주, 평화, (㉠)(이)라는 3가지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와 '평화'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해석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남북한 모두 '자주'와 '평화'를 원칙으로 한 것은 공통적이라 생각합니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를, 북한의 통일방안은 '연방국가의 점진적 완성'을 통일과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남한은 연합제를, 북한은 연방제를 제안한 것은 다르지만, 남북한 모두 통일에 이르는 길을 점진적인 과정으로 본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을


학생 병

저는 남북한 통일방안의 차이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통일국가 실현절차로 '(㉡)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를 제시한 반면, 북한의 통일방안은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을 통일국가 실현절차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는 남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 (가)는 직소 Ⅰ(Jigsaw Ⅰ) 모형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그 모형을 기반으로 뒤르켐(E. Durkheim)의 도덕성 3요소를 탐구하기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개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직소 Ⅰ 모형의 핵심을 이루는 3가지 개념은 홈팀, (㉠), 전문가팀이다. 학생들이 최초로 속하는 팀을 홈팀이라고 부르며, 각 홈팀에 속한 학생들은 각각의 주제들 가운데 1가지씩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나)

절차	교수 · 학습 활동
주제 선정	• 뒤르켐의 도덕성 3요소 탐구를 위한 주제 제시
⬇	
홈팀 구성	• 도덕성 3요소 탐구를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
⬇	
(㉠)	• 도덕성 3요소 탐구를 위한 개인별 소주제 선택
⬇	
과제별 전문가팀 활동	• 도덕성 3요소 중 선택된 1가지 요소와 관련하여 전문가다운 자료 수집 및 학습
⬇	
전문가 협동학습	• 각자 조사한 학습 내용 교환 및 심화학습으로 도덕성 3요소 파악
⬇	
홈팀 협동학습	• 도덕성 3요소인 규율 정신, (㉡), ㉢ 자율성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탐구 결과 전달 및 공유
⬇	
평가	• 전체 학습 활동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 평가 (집단 보상 없음)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절차와 관련하여 직소 Ⅰ 모형의 교육적 의의를 '학습 자료'를 사용하여 '~함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뒤르켐의 입장에서 밑줄 친 ㉢을 가진 사람이 하는 도덕적 행동의 특징을 '사회의 도덕규범'을 사용하여 서술할 것.

6. (가)의 갑, 을은 현대 도덕 심리학자들이고, (나)는 갑, 을과 도덕 교사 A의 가상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갑 : 공감은 보편적이고 친사회적인 도덕성을 위한 훌륭한 방책이다. 나의 공감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지적 발달을 통해 단순한 공감적 고통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의식적 욕망과 동기를 가진 고통의 감정인 (㉠)(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사회화와 도덕교육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을 : 4-구성요소 모형을 보면 특별한 상황에서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과정들의 총체를 파악할 수 있다. ㉡ 도덕성 연구에서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사고를 연구하고, 정신분석 심리학자들은 정서를 연구하며, 사회학습 심리학자들은 행동을 연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부한 사고방식이다.

(나)

A :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요즘 학생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도덕적 민감성도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 : 그럼, 먼저 저의 공감 이론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의 공감 이론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공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기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제들 중 (㉢)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을 : 저의 4-구성요소 중 '도덕적 민감성' 요소도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 아, 그렇군요. 그런데 도덕적 민감성은 특정한 상황에 도덕적으로 잘 반응하고, 주변 환경 내의 단서들을 빠르게 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을 :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 도덕적 민감성을 다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과 같이 을이 주장한 이유를 '인지', '정서'를 사용하여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행동'을 사용하여 서술할 것.

7. 갑은 동양 윤리 사상가이고, 을은 한국 윤리 사상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 진실로 (㉠)에 뜻을 두면 악(惡)은 없을 것이다. 군자(君子)가 (㉠)을/를 버리면 어떻게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 나는 쉰에 천명(天命)을 알았으며, … (중략) … 일흔에 ㉡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從心所欲不踰矩].
을	○ 성(誠)은 서(恕)의 실천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요, 경(敬)은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다.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을/를 밝게 섬기면 (㉠)을/를 실천할 수 있지만, 헛되이 태극(太極)을 높이고 이(理)를 하늘로 삼으면 (㉠)을/를 실천할 수 없다. ○ 신독(愼獨)이라는 것은 (㉣)는 것이지, 혼자 있는 곳[獨處之地]에서 조심한다는 것이 아니다. 어두운 방에서 혼자 옷깃을 여미고 단정히 앉아 있다가도, 매번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곳에서는 속임수와 험한 행동을 하면서 남들은 모른다거나 하늘은 듣지 못한다고 말하니, 신독이 어찌 이와 같은 것이겠는가? ○ '㉮ 인심(人心)은 오직 위태롭다.'라는 것이 내가 말한 권형(權衡)이다. 마음의 권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으니, 세상에서 위태롭고 불안한 것 중에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 도심(道心)은 오직 은미하다.'라는 것이 내가 말한 성(性)의 기호(嗜好)이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 조심한다'라는 형식으로 서술할 것.
○ 을의 입장에서 밑줄 친 ㉡의 이유를 밑줄 친 ㉮, ㉯을 사용하여 서술할 것.

8. 다음은 중국 불교의 한 종파의 주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은/는 하나의 진리이면서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 되어 각자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원만하게 융합한다[圓融]. 셋이 모두 공(空)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이 허상임을 나타내며, 그 셋이 모두 가(假)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명칭과 문자로만 임시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 셋이 모두 중(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상 자체를 나타낸다. (㉠)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면서 (㉡)에 갖추어져 있으니, 깨달음을 위해 (㉡)에서 그 (㉠)을/를 관(觀)해야 한다.
○ 큰스님은 중국으로 전래된 석가모니 부처 일생의 법문을 설법의 '시기', '내용', '방식'이라는 기준에 따라 오시팔교(五時八敎)로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오시'는 화엄시, 녹원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의 5가지로서 설법의 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팔교'도 그 기준에 따라 ㉢ 장교, 통교, 별교, 원교와 ㉣ 돈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의 총 8가지 교법으로 분류한 것이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을 통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 분류 기준을 '~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는 형식으로 서술할 것.
○ 밑줄 친 ㉣을 통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 분류 기준을 '~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는 형식으로 서술할 것.

9.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숙고와 합리적 선택은 모두 우리에게 달린 것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해 성취 가능한 것들에 관계한다. 또한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들에 대해 숙고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숙고할 수 있는 대상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동일하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에게 달린 것들에 대한 숙고와 욕구의 대상이므로, 합리적 선택 또한 우리에게 달린 것들에 대한 숙고된 욕구일 것이다.

○ 행위들에 관한 원리는 그 행위들의 목적이지만, 즐거움이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사람에게는 그 원리가 똑바로 보이지 않는다. 사실 악덕은 원리를 파괴하는 법이다. 따라서 실천적 지혜는 이성을 동반한 참된 실천적 품성상태로서 인간적인 좋음과 관련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예(technē)에는 기술적 능숙함이 있지만, ㉢실천적 지혜에는 그런 기술적 능숙함이 없다. 또 기예에 있어서는 일부러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지만, 실천적 지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실천적 지혜는 일종의 탁월성(aretē)이지, 기예가 아니다.

○ 탁월성은 단순히 올바른 이성에 따른 품성상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한 품성상태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에 관련한 올바른 이성이란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이다. 실천적 지혜 없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성격적 탁월성 없이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실천적 지혜나 탁월성 없이는 합리적 선택이 올곧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분명하다.

<작성 방법>

○ 밑줄 친 ㉡의 이유를 서술할 것.
○ 밑줄 친 ㉢의 이유를 밑줄 친 ㉠을 사용하여 서술할 것.
○ 밑줄 친 ㉣의 이유를 밑줄 친 ㉠을 사용하여 '탁월성은 ~, 실천적 지혜는 ~.'라는 형식으로 서술할 것.

10. 갑, 을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사려 깊은 사람은 (㉠)을/를 비웃으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필연에는 아무 책임도 없고, 우연은 유동적이며, 우리 힘에 의해 생기는 일은 다른 주체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이나 비난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철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화를 따르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신화에 따르는 것은 신들을 존경함으로써 달랠 수 있다는 희망을 암시해 주는 반면, (㉠)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달랠 수 없는 필연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을	사람들을 심란하게 하는 것은 그 일들 자체가 아니라, 그 일들에 관한 그들의 (㉡)(이)다. 이를테면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라면, 소크라테스에게도 그렇게 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에 관한 (㉡)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해를 받거나 심란하거나 슬픔을 당할 때에도 결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을/를 탓해야 한다. 자신의 일이 나쁘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일이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교육받기를 막 시작한 사람의 일이다.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도 비난하지 않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의 일이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갑의 입장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그 이유를 '원자'를 사용하여 서술할 것.
○ 을의 입장에서 괄호 안의 ㉠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서술할 것.

11. (가)는 서양 현대 사상가의 주장이고, (나)는 (가)를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도덕 교사의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우리는 자유, 평등, (㉠)와/과 같은 전통적인 관념을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민주주의적 해석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즉, 자유는 제1원칙에, 평등은 제1원칙과 더불어 공정한 기회 균등에 있어서의 평등의 관념에, (㉠)은/는 차등의 원칙에 연결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민주주의적 해석 속에 (㉠) 사상이 갖게 될 위치를 발견하게 된다.
(나)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시민 불복종을 '(㉡)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反)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흔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으로 공공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 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를 주장한 사상가에 의하면, 그것들 중 '최후의 수단'은 ㉢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들 중 하나이지만, 공공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는 시민 불복종의 정의(定義) 자체에 내포된 요소들일 뿐입니다.

<작성 방법>

-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 목적으로'라는 형식으로 서술할 것.
- ○ 밑줄 친 ㉢ 중에서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정의의 두 원칙과 관련하여 제시한 정당화 조건을 서술할 것.

12. 갑, 을은 서양 현대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한 분배는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한 것이면 정의롭다. 점유물에 국한할 때, 한 분배 상태에서 다른 분배 상태로 이행하는 합법적인 수단은 '(㉠)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정된다. 비점유물의 점유를 위한 최초의 합법적인 이행은 '(㉡)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정된다. ㉢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칙은 '한 분배는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가 있다면 정의롭다.'라는 것이다.
을	㉣ 단순 평등 체제란 모든 것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의 돈을 갖고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 자유 교환은 화폐를 통해 모든 가치들이 다른 가치들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한다. 모든 교환은 사회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시장은 개인들이 가치들에 부가하는 의미에 끊임없이 민감하며, 그 작동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다원주의적이다.

<작성 방법>

-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 밑줄 친 ㉢의 용어 자체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갑이 주장하는 이유를 서술할 것.
- ○ 밑줄 친 ㉣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고 을이 주장하는 이유를 밑줄 친 ㉤을 사용하여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